함안 강명리사지서 고려 금동불좌상 출토

불교문화재硏 폐사지 조사서
금동불 · 의곡사名 기와 발견
강명리사지 寺名 확인 성과
"추가 조사 · 복원 연계돼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재연구소가 함안 강명리사지서 발굴한 고려시대 금동불좌상의 세부 모습들. 강명리사지의 사찰이 고려시대까지 사세를 이어갔음을 알게 해준다.

경남 함안 광려산에 위치한 강명리사지에서 고려시대 금동불좌상과 당시 사찰명이 확인될 수 있는 명문기와가 출토됐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중요 폐사지 시 · 발굴조사'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경남 함안 강명리사지 일원 시 ·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 절터와 고려시대 금동불좌상, '의곡사(義谷寺)' 명 기와편 등이 확인됐다"고 7월 19일 밝혔다.

함안 강명리사지는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광려산에 위치한 절터이다. 광려산은 함안군과 창원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능선을 따라 곳곳에 석조불상, 절터, 석탑 등 많은 불교유적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불교문화 중심지로 평가받는다. 이 중 강명리사지는 광려산 남동쪽 사면 중단부에 위치해 있으며, 대형 석축들을 여러 단 쌓은 후 건물들을 조성한 산지가람이다.

하지만, 시 · 발굴조사 전 강명리사지는 공동묘지로 사용돼 왔으며, 그동안 지표조사 외 연구가 진행된 적 없이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 함안군(군수 조근제), (재)불교문화재연구소는 강명리사지의 보존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해 올해 4월 1차 추정 사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6월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시 · 발굴조사를 통해 함안 강명리사지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돼 고려시대까지 사세를 이어갔으며, 여러 번 중수과정이 확인될 정도로 전성기를 이루었던 사찰임이 확인됐다.

이는 출토된 유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의곡사' 명 기와편, '중희15년(重熙十五年)' 명문 기와편은 당시 강명리사지 위세와 사명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금동불좌상은 8cm 소형으로 연화대좌와 일체형으로 제작됐다. 현재 부식이 진행된 상태지만, 불상 육계와 통견가사, 수인, 광배를 거는 고리 등의 형태가 잘 관찰된다. 또한, 불상 좌 · 우측은 연결흔이 확인되고 연화대좌 바닥에는 촉(鏃)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제작 당시 삼존불 형태로 만들어져 불감 내부에 모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강명리사지 시 · 발굴조사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돼 온 사찰의 성격과 사명을 찾는 등 함안 지역 불교문화연구에 대한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향후 함안 강명리사지에 대한 추가조사, 문화재 지정, 정비, 복원 등이 연계된다면 광려산 '의곡사'는 함안지역의 또 다른 대표 유적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행선, 진리 나툼 위한 수행법"

안유숙 박사, 대행선연구원 제9회 계절발표회서

이 세계가 한마음 안에서 나온 것임을 여실하게 자각하는 주인공 관법의 2단계가 유식 5위 중 4위인 수습위와 맞닿아 있으며 각각 최종 구경열반을 위한 과정임을 밝힌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7월 17일 안양본원 3층 서 제 9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기열 동국대 교수의 '공의 나툼 체제와 원리에 관한 고찰' △안유숙 박사의 '나툼으로 향하는 수습위-유식의 관점에서 본 대행선의 2단계'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안유숙 박사는 '나툼으로 향하는 수습위-유식의 관점에서 본 대행선의 2단계'에서 대행 스님의 3단계 주인공 관법을 설명하며, 유식5위에서 각 단계별 접점을 설명했다.

안 박사는 "대행 스님의 주인공관법은 나를 보는 단계,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아는 단계, 나와 둘이 아닌 나툼의 구경경지를 이루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며 "주인공관법 3단계 중 나를 보는 주인공관법 1단계는 무분별의 마음인 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아는 주인공관법 2단계는 시공을 초월해 구경을 향하는 수습위, 보살도의 완성이자 나눔인 주인공관법 3단계는 나툼의 구경경지를 이루는 구경위와 대치된다"고 밝혔다.

안 박사는 주인공관법 2단계 수행은 '이심전심의 묘법'을 깨우치는 수행임을 밝히며 나툼 전 마음을 닦는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치되는 유식의 4위인 수습위는 보살의 단계로 번뇌를 단절하는 단계다.

안 박사는 "대행 선사께서는 이 과정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거기 놔라'고 하셨다. 각자가 깨어나는 수행뿐만 아니라 그 선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나아가는 것 또한 나툼을 위한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안 박사는 끝으로 "세 번째 단계인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 일체를 얻는 소식', 즉 나툼인 구경각지는 1단계, 마음을 관찰하는 의식, 2단계 마음을 닦는 수행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요즘 같은 시기 이같은 가르침은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궁극의 목적이 있다. 주인공 관법의 나툼 도리는 진여 성품을 받은 온전한 보살행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기열 교수는 〈한마음요전〉에서의 '나툼'에 대한 의의와 배경을 〈반야경〉 입장에서 '공의 나툼'과 비교해 다각도로 해석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공의 나툼'은 진리가 중생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현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이러한 설법이 법신불 사상과도 다름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의 나툼'은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자 모두에게 현현하는 붓다의 모습이란 것이다.

유식5위, 주인공관법 비교해
不二 관법 2단계는 수행단계
"관법수행, 보살행에 연결돼"

박 교수는 "'나툼'이라는 말은 '드러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가 현현한다'는 의미로 마음을 떠나 존재하지 않기에 진리 나툼의 주체는 마음, 나투는 곳도 마음이다"며 "그런 마음 작용을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 삼매라고 한다. 특히 〈팔천송〉에서 반야바라밀다는 공성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로 설명되는데, 이중 공성 삼매는 오온이 공한 것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코로나 확산으로 위험한 시기에 망설임 없이 발표해주고 함께 자리한 교수, 학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불교를 바로 알리려는 분들이 있어 대행 선사의 사상이 새롭게 조명되는 기회가 만들어 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주일 ·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7월 17일 안양본원 3층서 제9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석주 스님 사상' 학술적 조명한다

만해학회, 8월 9일 세미나

만해학회는 8월 9일 오후 2시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희망 극복의 시대, 석주 스님의 생애와 만해사상'을 주제로 제21차 만해축전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석주의 삶과 한용운'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석주의 생애와 포교사상'을,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석주 정일대종사의 교육활동과 중앙승가대'를,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석주 스님의 불교혁신 활동'을 각각 발표한다.

또한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석주 스님의 생애와 근현대 불교사 기록'을, 이선이 경희대 교수가 '한용운과 여운형의 민족독립에 대한 인식 비교'를, 한건택 내포관광진흥원장이 '만해 한용운 가문과 생가지에 대한 재고'를, 전기철 前 숭의대 교수가 '선시(禪詩)의 어법' 등의 연구논문을 대중에게 소개한다.

논문 발표 이후에는 만해한용운연구소 공모창작곡 연주 · 독창 등이 이어지며, 만해 스님의 시 낭송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칠곡 송림사 대웅전.


대구 동화사 극락전.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영남지역 조선시대 佛殿 '보물' 승격

문화재청, 송림사 대웅전 등 3건 지정공고

17~18세기 팔공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고찰들의 불전(佛殿)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문화재 '칠곡 송림사 대웅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대구 동화사 극락전',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칠곡 송림사 대웅전은 임진왜란의 전란을 겪은 후 1649년에 중수됐으며 이후 1755년, 1850년 두 차례의 중수를 거쳐 현재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건물이다.

평면 규모뿐 아니라 실내구성에서도 당대 흐름인 중앙에 대형 불단을 설치하고 후불벽을 두어 예불공간을 확장시키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옛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포의 짜임은 비교적 시기가 올라가는 교두형 공포로 짰는데 이런 유형의 공포는 팔공산 일대 사찰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특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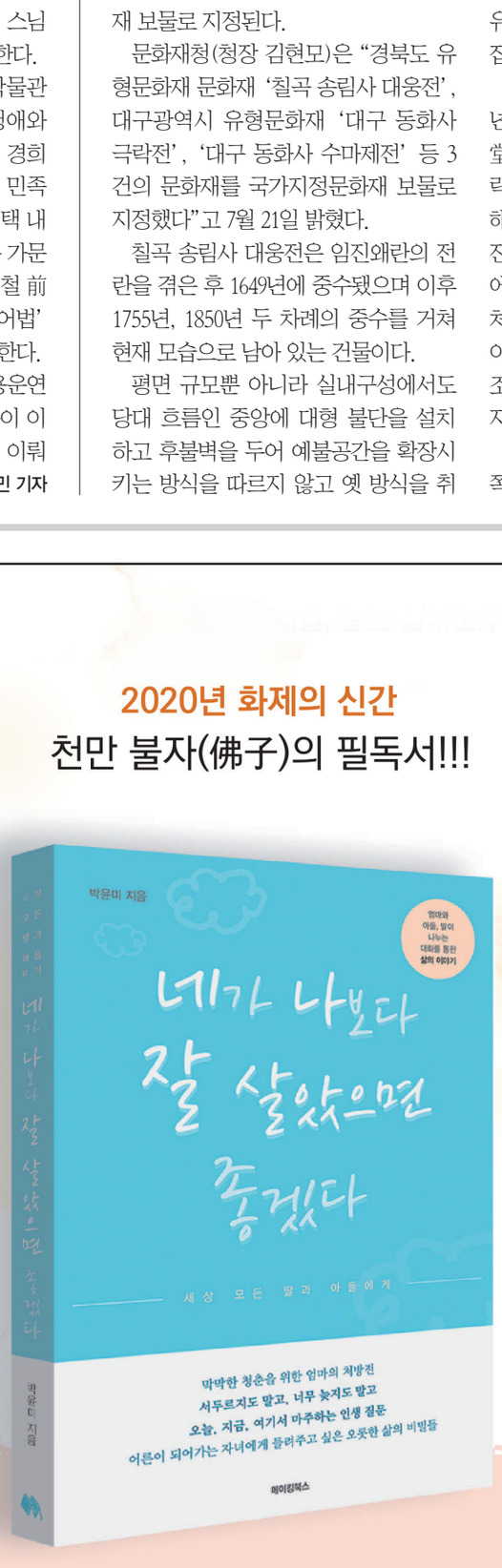
대구 동화사 극락전은 1600년(선조 33년)에 중건을 시작했고, 그 중 금당(金堂)을 제일 먼저 건립했는데 지금의 극락전으로 판단된다. 이후 문헌기록을 통해 1622년에 중창되었음을 확인했다. 임진왜란 이후에 재건된 조선후기 불전 중에서는 건립 시기가 빠른 편에 속하며, 처마와 창호, 단청 등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의 변화가 확인되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의장은 건립 당시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은 극락전의 뒤쪽에 있으면서 고금당(古金堂)이라고 전한다. 1465년(세종 11년)에 건립되었고, 임진왜란 뒤 1702년(숙종 28년)에 중창됐다.

수마제전의 공포 의장도 극락전과 마찬가지로 교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포 의장 기법은 송림사 대웅전, 동화사 극락전 등과 함께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징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3건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과 당시 이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던 같은 계보의 기술자 집단에 의해 조영된 건축물"이라면서 "시대적으로 앞서고 각각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 역사, 학술적 조형예술적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2020년 화제의 신간
천만 불자(佛子)의 필독서!!!



세상 모든 딸과 아들에게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와 아들, 딸이 나누는 삶의 이야기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 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